

# 데이빗슨의 Slingshot 논변은 진리대응론을 논박하는가?<sup>1)</sup>

이병덕 (서강대)

**【요약문】** 데이빗슨은 “Slingshot 논변”이라는 그의 유명한 논변을 이용하여 진리 대응론을 비판한다. 그의 논변은 타당하지만, 다음 두 전제들에 의존한다. (1)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2) 참인 문장은 그 문장 내의 한 단칭어가 공지시적 단칭어에 의해 대체될 때 대응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두 번째 전제가 설득력이 없음을, 특히, Slingshot 논변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동일성 문장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데이빗슨, Slingshot 논변, 진리 대응론, 진리제조자(truth-maker).

## 1. 서론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은 진리 대응론(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이 지탱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응론에 대한 일반적인 불평은 단어 또는 믿음과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를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응론에 대한 이러한 불평은 건전하지 않다. ... 이것은 진리가 인식적인 개념인 한에서 정당한 불평일 것이다. ... 대응론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보다 간단하다. 이것은 참인 문장들이 대응하는, 흥미롭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avidson 1990, pp. 302-303.)

---

1)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논리학회 2000년 4월 모임에서 발표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준 송하석 박사께 감사드린다.

대응론에 의하면, 진리는 문장과 세계의 사실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성립한다.<sup>2)</sup> 한 문장은 그 문장에 대응하는 사실이 존재하면 참이 된다. 예컨대, “그 고양이는 그 명석 위에 있다”는 문장은, 만일 그 문장이 참이라면, 그 고양이가 그 명석 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응한다. 비록 대응(correspondence)의 관념과 사실(fact)의 관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응론이 직관적 호소력을 갖고 있는 이론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참이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은 거짓임을 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대응론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세계의 객관적 사실이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대응론을 논박하기 위하여 통상 “Slingshot Argument”라고 불리는 논변을 사용한다. 대응론은 매우 중요한 고전적 진리 이론이므로, 그의 논변이 성공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데이빗슨의 논변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논변을 제시하는데 있다.

데이빗슨(Davidson 1967, p. 19.)에 따르면, 그의 slingshot 논변은 프레게에서 유래한다. 프레게(Frege 1892)는 문장을 일종의 이름으로 간주하며, 또한 구성원리(compositionality principle)를 채택한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구성요소의 하나인 이름이 같은 지칭체(denotation)를 갖는 다른 이름에 의해서 대체될 때, 전체 문장의 외연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들에 입각하여, 프레게는 모든 참인 문장들은 참(THE TRUE)을 동일한 지칭체로 가지며, 모든 거짓인 문장들은 또한 거짓(THE FALSE)을 동일한 지칭체로 갖는다고 주장한다. 처치(Church 1943)는 프레게의 논변을 카르납의 책 “Introduction to Semantics”에 대한 그의 서평에서 보다 논리적으로 정확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논변을 때때로

2)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문장(sentence), 진술(statement), 그리고 명제(proposition) 사이의 구분을 무시하고 단지 문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이들 사이의 구분은 필자의 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프레게-처치 논변”(the Frege-Church Argument)이라고 부른다. 데이빗슨은 이 논변을, 대응론을 논박하기 위하여, 수정한다. “Slingshot”이란 이름은 바와이스와 페리의 논문(Barwise and Perry 1981, p. 395)에서 유래한다. 그들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무너뜨린 것처럼, 이 논변이 매우 간단한 논변인데도 불구하고 대응론과 같은 거대한 이론을 논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변을 “Slingshot”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제 데이빗슨의 Slingshot 논변을 살펴보자. 아래에서 필자가 제시한 논변은, 데이빗슨이 그의 1967년 논문에서 제시한 논변을 “대응”(correspondence)이란 용어에 맞추어서 다소 변형한 것이다. 데이빗슨은 그의 1967년 논문에서 “모든 참인 문장들은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변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1990년 논문에서 이 결론이 “모든 참인 문장들은 동일한 것에 대응한다”와 동등한 주장으로 다룬다. 데이빗슨의 Slingshot 논변은 다음 두 개의 원리들을 전제로 갖는다.

- (I)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장들은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 (II) 참인 문장은 그 문장 내의 한 단칭어(singular term)가 공지시적(co-referring) 단칭어에 의해 대체될 때 대응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의 네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 (1) Snow is white.
- (2)  $(tx)(x = \text{Diogenes}) = (tx)(x = \text{Diogenes} \ \& \ \text{snow is white})$
- (3)  $(tx)(x = \text{Diogenes}) = (tx)(x = \text{Diogenes} \ \& \ \text{grass is green})$
- (4) Grass is green.

여기서 “ $(tx)(x = \text{Diogenes})$ ”는 디오게네스와 동일한 유일한 대상  $x$ 를

지칭한다. Slingshot 논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문장 “Snow is white”는 눈은 희다라는 사실에 대응한다. (1)과 (2)가 논리적으로 동치임을 주목하라. 따라서, 원리 (I)에 의해서, (2) 또한 눈은 희다라는 사실에 대응한다. 마찬가지로, (3)과 (4)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므로, (3)과 (4)는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이제 (2)와 (3)이 단지 한 단칭어가 공지시어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점에서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tx)(x = Diogenes & snow is white)”와 “(tx)(x = Diogenes & grass is green)”는 공지시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리 (II)에 의해, (3)은 눈은 희다라는 사실에 대응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과 (4)는 동일한 사실에 대응하므로, 결국 문장 “Grass is green”은 눈이 희다라는 사실에 대응해야만 한다.

위의 논변은 어떤 임의의 참인 두 문장들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따라서 만일 (I)과 (II)의 두 원리들이 성립한다면, 위의 논변은 모든 참인 문장들은 같은 사실에 대응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응 개념은 철학적 중요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데이빗슨은 “대응론들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 참인 문장들이 대응하는, 흥미롭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990, p. 303) 그리고 “대응의 개념은 공허한 개념이다”(1990, p. 305)라고 말한다.

위의 Slingshot 논변은 타당하다. 따라서 대응론을 이 논변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논변의 두 전제들 중의 하나를 거부해야 한다.

먼저 원리 (I)를 고려해 보자. 이 원리를 지지해주는 직관은 다음과 같다. 한 (종합적) 문장은 한 사태를 기술한다. 만일 한 사태가 성립하면, 이 사태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일 두 문장들이 항상 동일한 진리가를 갖는다는 것이 단지 논리에 의해서 보장된다면, 그 두 문장들이 기술하는 것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두 문장들이 참이라면 동일한 사실을 지칭해야한다. 이러한 직관은 다음을 고려할 때 더욱 강화된다. 우선, S라는 사실과  $\neg\neg$ S라는 사실, 그리고  $\neg\neg\neg\neg$ S라는 사실들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둘째로, 만일 S와  $\neg\neg$ S가 다른 사실들을 지칭한다면, 램지(Ramsey 1931, p. 146.)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

리는 S라는 단일한 사실로부터 무한히 많은 다른 사실들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neg S$ 라는 사실, S &  $\neg S$ 라는 사실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I)은 매우 설득력 있는 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다. 다음 두 문장들을 고려하자.

(5) Snow is white.

(6) Diogenes = Diogenes & snow is white.

(5)와 (6)은 정확히 동일한 모델들(models)에서 참이므로 논리적 동치이다. 그런데 이 두 문장들은 같은 사실을 지칭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들의 동일성 조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동일성의 필요 조건으로서 다음 조건에 호소할 수 있다.

두 사실들은, 만일 그들이 필연적으로 공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실이 아니다.(Two facts are not identical if they do not necessarily co-exist.)

이 원리를 사실 동일성을 위한 양상 조건(the modal criterion of fact-identity)이라고 부르자. 이 원리는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다. 왜냐하면 만일 A라는 대상이 존재하면서 B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A와 B는 분명 같은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의 역(converse)이 성립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사실 동일성의 구조적 기준(the structural criterion of fact-identity)에 따르면, 사실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이 같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위의 양상 조건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Fa”라는 사실은 “Fa & 3 + 4 = 7”이라는 사실과 필연적으로 공존한다. 그런데 전자의 사실과는 달리, 후자의 사실은 3이라는 수를 구성요소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Snow is white”라는 사실은 “Diogenes = Diogenes & snow is

white”라는 사실과 필연적으로 공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후자의 사실은 디오게네스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사실은 디오게네스와 그의 동일성에 관련되어 있지만, 전자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원리 (I)은, 적어도 제한되지 않은 형태에서는,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비록 위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위의 비판은 Slingshot 논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Rodriguez-Pereyra, 1998)가 지적하는 것처럼, 거의 원래의 Slingshot 논변만큼 강력한 Slingshot 논변의 수정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4) 대신에 다음 네 문장들을 사용하자.

(1') Socrates is moral.

(2')  $(\iota x)(x = \text{Socrates}) = (\iota x)(x = \text{Socrates} \ \& \ x \text{ is moral})$ .

(3')  $(\iota x)(x = \text{Socrates}) = (\iota x)(x = \text{Socrates} \ \& \ x \text{ is an Athenian})$ .

(4') Socrates is an Athenian.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는 (1')과 (2')이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직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소크라테스와 동일한 대상이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면서 도덕적인 대상과 동일하지 않다면,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이게 하면서 도덕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1998, p. 517) 직관적으로 “Socrates is moral”이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사실은 “The entity that is identical to Socrates is identical to the entity that is identical to Socrates and is moral”이라는 문장을 또한 참이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3')과 (4')이 지칭하는 사실도 동일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도덕적이라는 사실과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이라는 사실이 동일한 사실이라는 부조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데이빗슨의 원리 (I)은 필요치 않다. 단지 다음의 보다 약한 원리 (I')면 충분하다:

(a) Fa 와

(β)  $(\iota x)(x = a) = (\iota x)(x = a \ \& \ Fx)$

는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

“Fa”라는 사실과 “ $(\iota x)(x = a) = (\iota x)(x = a \ \& \ Fx)$ ”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동일성의 양상적 기준에 호소하여 Slingshot 논변을 피할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하면, 논리적 동치는 Slingshot 논변의 효력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I\*)는 설득력 있는 원리인가? 그래함 오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우리가 확정기술어(definite description)에 관하여 러셀주의자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Fa’가 한 원자 사실을 표현하고, ‘ $a = (\iota x)(x = a \ \& \ Fx)$ ’는 한 일반 사실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원자 사실들과 일반 사실들의 집합들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 이제 대신에 우리가 확정기술어가 지칭적 용법(referential use)을 갖는 것으로 취급하길 선호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Fa’는 대상 a가 속성 F를 갖는다는 일원적 사실(a monadic fact)을 표현하고, ‘ $a = (\iota x)(x = a \ \& \ Fx)$ ’는 a와 a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이원적 사실(a dyadic fact)을 표현한다.”(Oppy 1997, p. 125.)

그러나 원리 (I\*)는 사실(fact)이 **진리제조자(truth-maker)**라는 견해에 의하여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암스트롱(Armstrong 1997, p. 2.)에 따르면, 진리제조자는 한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세계 속의 사실이다. 한 진리제조자는 한 문장의 진리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 토대를 만들어 준다(grounding)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만일 한 진리제조자 T가 존재할 때 필연적으로 문장 S가 참이면, T는 S의 진리의 토대를 만들어 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진리(truth)와 진리제조자(truth-maker) 사이의 관계는 다-대-다(many-to-many) 관계이다. 한 문장은 복수의 진리제조자들에

의해서 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문장 “ $P \vee Q$ ”는 두 개의 구별되는 진리제조자들, 즉, “P”를 위한 진리제조자 또는 “Q”를 위한 진리제조자에 의해서 각각 참이 될 수 있다. 한편, 많은 참인 문장들이 하나의 진리제조자에 대응할 수 있다. 예컨대, “P”를 위한 진리제조자는 또한 “ $P \vee Q$ ”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장들, 예컨대, “ $R \rightarrow P$ ”를 위한 진리제조자가 될 수 있다.

이 견해에 근거하여, 우리는 “Fa”와 “ $(\exists x)(x = a) = (\exists x)(x = a \ \& \ Fx)$ ”가 동일한 진리제조자에 의해 참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견해이다. a가 F라는 속성을 갖는 매우 단순한 가능 세계를 고려해 보자. 이 세계에서 “Fa”는 참이다. 그리고 또한 “ $(\exists x)(x = a) = (\exists x)(x = a \ \& \ Fx)$ ”도 참이다. 첫 번째 문장은 a가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참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위한 진리제조자는 무엇인가? 가장 명백한 후보자는 a가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a가 F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a와 동일한 대상이 a와 동일하면서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대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암스트롱(Armstrong, p. 87.)에 의하면,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는 그 관계 속의 항(terms)의 존재가 그 관계의 존재를 필반(entail)하는 관계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동일성 관계(identity relation)는 내적 관계이다. 왜냐하면 a의 존재는 a와 a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필반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가능 세계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a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a와 a 사이의 동일성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a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a와 a가 동일하다는 사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암스트롱은 수반(supervenience)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사실 A가 사실 B에 수반한다는 것은 B가 존재하면서 A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a가 a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a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수반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사실이 성립하면서, 전자의 사실이 성립치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수반하는 것은 그 수반의 기반



(what it supervenes upon)에 존재론적으로 부가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즉, a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가하여 “a = a”를 참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상의 사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tx)(x = a) = (tx)(x = a & Fx)”라는 사실이 a가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의 사실이 성립하면서, 전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a가 F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사실 이외에 “(tx)(x = a) = (tx)(x = a & Fx)”를 참이게 하는 그 이상의 사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 경우는 대칭적인 수반(symmetric supervenience)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사실이 성립하면서 후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동일성의 경우이다. 즉, 위의 두 사실들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I\*)는 설득력 있는 원리이며, 따라서 Slingshot 논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제 원리 (II)를 고려해 보자. 이 원리의 설득력은 한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이름이 그 문장이 대응하는 사실 속의 한 구성 요소를 지칭하고, 이름이 지칭하는 것이 동일한 한,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도 전체 문장이 가리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시세로(Cicero)와 툴리(Tully)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시세로는 웅변가였다”와 “툴리는 웅변가였다”는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

원리 (II)가 비동일성 문장들(non-identity sentences)에 대해서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원리는 동일성 문장들에 관해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1')-(4')를 다시 고찰해 보자.

(1') Socrates is moral.

(2') (tx)(x = Socrates) = (tx)(x = Socrates & x is moral).

(3') (tx)(x = Socrates) = (tx)(x = Socrates & x is an Athenian).

(4') Socrates is an Athenian.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1998, p. 517.)는 (2')와 (3')이 같은 사실에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면서 도덕적인 대상 (즉, 소크라테스)은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면서 아테네 사람인 대상 (즉, 소크라테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은 같은 대상에 대한 동일성의 사실들이다.” 그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2')이 가리키는 것은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이원적 사실(a dyadic fact)이다. 그리고 (3')이 가리키는 것 역시 동일한 이원적 사실이다. 따라서 (2')과 (3')는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 그러나 다음 두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7) Socrates = Socrates.

(8) Socrates =  $(\iota x)(x = \text{Socrates} \ \& \ x \text{ is an Athenian})$ .

(7)과 (8)은 상이한 공지시적 단칭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만일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가 옳다면, (7)과 (8)은 동일한 이원적 사실을 지칭해야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와 동일하면서 아테네 사람인 대상과 동일하다는 사실과 확연히 구별된다. 왜냐하면 단지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전자의 사실을 필반(entail)하지만, 후자의 사실을 필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7)은 내적 관계를 표현하지만, (8)은 외적 관계를 표현한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2')와 (3')은 상이한 진리제조사들에 의해서 참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도덕적이면서 스파르타 사람인 가능 세계에서 (2')은 참이지만, (3')은 거짓이다. 따라서,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의 주장과는 달리, (2')와 (3')이 같은 사실을 지칭한다고 볼 좋은 이유는 없다.

또한, 앞서 우리는 원리 (I\*)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이 진리제조사라는 견해에 호소하였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7)과 (8)과 같은 문장들이 동일한 이원적 사실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원리 (I\*)를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 $(\iota x)(x = a) = (\iota x)(x = a \ \& \ Fx)$ ”는 a와 a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이원적 사실을 표현하지만, “Fa”는 a가 속성 F

를 갖는다는 일원적 사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사실들이 동일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Slingshot 논변의 한 함축적인 가정을 비판함으로써 이 논변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 즉, “ $(\iota x)(x = \text{Socrates} \ \& \ x \text{ is moral})$ ”과 같은 확정기술어들이 진정한 단칭어들(genuine singular terms)인지를 비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확정기술어들에 대한 러셀 방식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문장 (2')과 문장 (3')은 다음과 같이 (2'')과 (3'')으로 번역될 수 있다:

(1') Socrates is moral.

(2'')  $(\exists x)[(\forall y)(y=\text{Socrates} \leftrightarrow y=x) \ \& \ (\exists w)((\forall z)(z=\text{Socrates} \ \& \ z \text{ is moral} \leftrightarrow z=w) \ \& \ w=x)]$ .

(3'')  $(\exists x)[(\forall y)(y=\text{Socrates} \leftrightarrow y=x) \ \& \ (\exists w)((\forall z)(z=\text{Socrates} \ \& \ z \text{ is an Athenian} \leftrightarrow z=w) \ \& \ w=x)]$ .

(4') Socrates is an Athenian.

만일 (2')과 (3') 속의 확정기술어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거된다면, 원리 (II)는 (2'')과 (3'')이 동일한 사실에 대응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p. 518.)는 위의 같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비록 확정기술어가 진정한 단칭어가 아닐지라도, 술어 F가 정확히 한 대상에 적용되면, 확정기술어 ‘ $(\iota x)(Fx)$ ’는 진리함수적 맥락에서, 이차적인 목적상, 마치 단칭어인 것처럼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 그는 다음의 수정된 원리를 제안한다:

원리 (II\*): “S'가 S라는 사실에 대응한다”의 진리는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확정기술어를 대체할 때 보존된다.

(1')-(4') 대신에 (1'), (2''), (3''), 그리고 (4')를 사용하는 Slingshot 논

변은, 확정기술어를 러셀 방식으로 제거한 문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정기술어의 의미론에 독립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에 따르면, 원리 (II\*)는 (2'')에서 (3'')으로의 스텝을 정당화해 준다. 왜냐하면 (II\*)는 확정기술어를 러셀 방식으로 이해할 때 (2')에서 (3')으로의 추론을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p. 519.)에 따르면, 확정기술어에 대한 어떤 의미론을 선호하든지 상관없이, Slingshot 논변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확정기술어 “ $(\iota x)(Fx)$ ”를 진리함수적 맥락(truth-functional contexts)에서 마치 단칭어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x =$  사실  $y$ ”가 진리함수적 맥락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다음 문장들을 고려해 보자.

(8) Socrates =  $(\iota x)(x=\text{Socrates} \ \& \ x \text{ is an Athenian})$ .

(9) Socrates =  $(\iota x)(x=\text{Socrates})$ .

여기서 “ $(\iota x)(x=\text{Socrates} \ \& \ x \text{ is an Athenian})$ ”와 “ $(\iota x)(x=\text{Socrates})$ ”는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확정기술어들이다. 만일 우리가 (8)과 (9)를 러셀 방식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다음을 얻게 된다:

(8')  $(\exists x)((\forall y)(y=\text{Socrates} \ \& \ y \text{ is an Athenian} \leftrightarrow y=x) \ \& \ x=\text{Socrates})$ .

(9')  $(\exists x)((\forall y)(y=\text{Socrates} \leftrightarrow y=x) \ \& \ x=\text{Socrates})$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스파르타 사람인 가능세계에서, (8')은 거짓이지만, (9')은 여전히 참이다. 따라서, 원리 (II\*) 역시 설득력이 없다.

끝으로 한 가지 가능한 비판을 고려해 보자. 다음 두 문장들을 살펴보자.

(10) Caesar was a Roman emperor.

(11) The one who was stabbed by Brutus was a Roman emperor.

부루터스에 의해 칼에 찔린 사람이 시저가 아닌 가능 세계가 있기 때문에, (10)과 (11)은 같은 사실을 표상하지 않는다. 이 점에 의하여, 혹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지 모른다. 즉, 우리는 (10)과 (11)이 현실 세계에서 같은 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직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직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세계에서, (10)은 (10)을 위한 진리제조자, 즉,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에 위해서 참이다. 대조하여, (11)이 참이 되기 위해서 다음의 두 진리제조자들이 필요하다. 하나는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시저가 부루터스에 의해 칼에 찔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 두 진리제조자들이 함께 (11)을 참이게 한다. 우리가 (10)과 (11)이 같은 사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직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문장들이 같은 진리제조자, 즉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차이점은 (11)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진리제조자, 즉, 시저가 부루터스에 의해 칼에 찔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10)과는 달리, (11)은 다른 가능 세계들에서 다른 진리제조자들에 의해서 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부루터스에 의해서 칼에 찔린 그 사람이 마크 앤토니(Mark Antony)이고, 그 역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능 세계에서 (11)은 또한 참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11)은 상이한 진리제조자들에 의해 참이 된다. 즉, 앤토니가 로마의 황제였다는 사실과 그가 부루터스에 의해 칼에 찔린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참이 된다. 따라서 (10)과 (11)은 동일한 사실을 표상하지 않는다.

끝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데이빗슨이 그의 Slingshot 논변을 위해 사용한 원리 (I)과 원리 (II)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보다 약한 원리들인 (I\*)와 (II\*)를 사용하여도 Slingshot 논변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로드리구에즈-페레이라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원리 (I\*)의 설득력은 사실이 진리제조자라는 견해에 의존하며, 이 견해는 원리 (II)와 원리 (II\*)를 설득력 없게 만든다. 특히 이 원리

들은 동일성 문장들에 적용될 때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성 문장들은 Slingshot 논변의 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비록 진리 대응론이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대 이론이 데이빗슨의 Slingshot 논변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 참고문헌

- Armstrong, D. M.(1997). *A World of State of Affai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wise, Jon and Perry, John(1981). "Semantic Innocence and Uncompromising Situation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ume VI: The Foundations of Analytic Philosophy*, pp. 387-403.
- Church, Alonzo(1943). "Carnap's *Introduction to Semantics*," *Philosophical Review* 52, pp. 298-305.
- Church, Alonzo. (1956).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ogic*,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vidson, Donald. (1967). "Truth and Meaning,"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4): pp. 17-36.
- Davidson, Donald. (1990).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ruth," *Journal of Philosophy* 87, pp. 279-328.
- Frege, Gottlob. (1892). "On Sense and Reference," Peter Geach and Max Black (ed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Basil Blackwell, Oxford: 1970): pp. 56-78.
- Oppy, Graham. (1997). "The Philosophical Insignificance of Gödel's Slingshot," *Mind* 106, pp. 121-141.
- Ramsey, F. P. (1927). "Facts and Propositions,"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31), pp. 138-155.
- Rodriguez-Pereyra, Gonzalo. (1998). "Searle's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and the Slingshot," *Philosophical Quarterly* 48, pp. 513-522.